

## 컬럼

### “税金만은例外다”

中產層이 安定을 누리면 세상이 조용하다. 心理的 中產層이 實質的 中產層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더 둑 좀 밀어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프**랑스의 笑話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한번은 루이 15세에게 臣下가 와서 보고했다. 『宮中の衛兵 하나가 장난삼아 銀貨 한닢을 삼켰는데 목에 걸렸는지 갑자기 안색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王은 즉시 저명한 医師를 불러 오라고 명했다. 이 때 옆에 있던 노아이유元帥가 말했다. 『폐하, 医師가 아니라 회계감사관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왜 회계감사관을 부르란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관은 그 銀貨에 대해 우선 10분의 1의 税金을 붙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그 나머지의 10분의 1의 세금을 떼 것입니다. 이렇게 몇번만 税金을 떼면, 결국 그 銀貨는 작아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稅**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악살스럽게 표현한 笑話이다.

얼마전 全經聯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내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날 勞總은 근로소득의 人的공제를 높여 5人 가족 기준으로 현재의 月 15만 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經聯은 대기업의 사장님들의 단체이다. 全經聯의 건의는 방위세 주민세를 감안하면 종합소득세의 실질 최고세율이 79.05%에 달하고 있으니 이를 62%線으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최고세율은 年所得 6천만 원 이상 월소득으로 고치면 5백만원 이상이 적용된다. 한달 봉급이 5백만원인 사장님도 税金 4백만 원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1백만원 뿐이니 社長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세금이 무겁기는 무거운 듯하다.

**勞**總의 건의는 흔히 말하는 甲勤稅의 면세점을 올리라는 것이다. 월급이 22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税金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月 22만원 이하의 봉급으로는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여 税金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税金은 몇백만원의 봉급을 받는 사장님에게도 벅차고, 또 20여만원 받는 근로자에게도 힘겹다.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은 벅차고, 企業體에게도 세금은 벅차다.

어디 그뿐인가. 社会生活에는 税金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고, 무슨 행위를 하든 税金이 어김없이 붙는다. 죽음과 税金은 피할 길이 없다. 税金에 시달리던 나폴레옹의 義妹 엘리자베드가 臨終에서 누군가가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하자,『税金만은例外다』고 한 익살스런 대꾸는 実感이 간다. 아마 税金이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일게다.

**租** 稅의 역사를 보면, 별 희한한 세금들이 다 있다 있다. 봉건시대의 일이지만, 러시아 황제는 콧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税金을 부과했다. 프랑스에선 住宅 마당에 두른 담장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王이 있었다. 日本에서도 집의 窓과 현관의 크기, 그리고 下女의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던 시대가 있었다. 한때 日本에선 強盜로부터도所得税를 받아내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일어 웃지 못할 物議를 빚었었다. 강도의 収入은 雜所得으로 분류하고, 시설비(도구등), 교통비, 복면비, 그 밖에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설마 客說이겠지만, 그 本心은 세금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다.

**인** 풀레가 심할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봉급생활자들이다. 物価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가격이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代價에 인플레이션(또는 그 이상)을 없어 받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만, 월급장이는 그 반대로 앓아서 減俸당하는 불이익을堪耐하는 경우가 많다.

봉급생활자들만큼 성실한 納稅者가 또 있을까. 이들은 매달 꼬박 빠짐없이 내는 세금을 피하거나 출입 방법이 없다. 게다가 그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월급봉투를 받기도 전에 세금이 원천징수돼 버린다. 봉급생활자들은 이렇듯 納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다음, 남은 봉급으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한달지출을 接排한다.

수년전 프랑스에서 「出世하지 않는 法」이란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일이 있었다. 그 読者들의 심정을 짐작할만 하다. 이웃 日本에선 「税金을 많이 내는 秘

訣」이란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었다. 그 読者들의内心도 역시 이해할만 하다. 설마 세금을 남보다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그런 책을 읽는 사람이 있었을까. 사람의 미묘한 二重心理를 째뚫은 책들인 것 같다.

「税金을 많이 내는 秘訣」이란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더라면, 필경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다. 셀러리 맨들은 이미 그것을 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心理的 中產層」이란 말이 있다. 자신의 実所得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내 处地쯤 되면…』하는錯覺.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심리적인 환상일 뿐, 中產層의 実像과는 거리가 멀다.

**美** 国의 경우, 이른바 中產層은 50%가 조금 넘는다. 소득분배를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마치 양파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그 만큼 안정성이 높다. 대저 모든 나라들이 지향하고 있는「先進」의 모델은 그런 양파모양의 圖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中產層은 당연히 사회의 중추적 존재이다. 그들은 下位의 소득자들에게 희망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된다. 또 그들 中產層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한, 세상은 조용하다. 中庸的政治道는 바로 그린데서 우러나온다.

**政** 府에서는 지금 税制改革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의 기본방향은 中產層육성에 중점을 두어 소득세 법도 폭넓게 손질이 가해지리라고 한다. 셀러리맨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税制는 상황의 산물이요, 時代의 산물이다. 특히 北僕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납세의무는 한결 의미가 깊다. 따라서 무작정 税金을 줄이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셀러리맨들은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心理的 中產層이 実質的 中產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좀 밀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영계(鶴)가 씨암탉으로 자라 알을 낳아 또 다시 병아리를 품어내듯이 中產層육성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